

1. 관심 분야 및 지원 동기

[국가대표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늘어난 평균 수명, 웰빙을 중시하는 삶의 트렌드등 이제는 삶과 건강에 관련된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시밀러 산업이야말로 한국의 100년을 책임질 新성장동력이라 생각했으며 특히, '셀트리온'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여 기술력과 노하우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대표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세계의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희망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따뜻함과 강인함이 느껴지는 기업 셀트리온은 저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기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저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속, '바이오시밀러'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설비, 장비의 지속적인 효율성 개선을 통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설비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혁신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첫 번째,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7주 생산 기술 인턴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별/공정별/라인별 불량 원인 분석 및 개선 업무를 바탕으로 공정라인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여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3D CAD 국가대표 선발전을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산화된 3D 설계 S/W 운용능력 및 도면 해독능력을 키워 설계역량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세 번째, 기계공작 교육 수료, 소방병 근무 등 기계와 안전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이를 통해, 내 손으로 직접 기계를 설치, 운영, 가동함으로써 기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 정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갖춘 신입사원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주요 경력 사항 (신입 지원자는 지원 분야 관련 경험 기술)

[인턴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다]

생산기술 인턴 시, 설비보전 업무를 위한 '공정개선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최상의 상태에서 플랜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인턴 당시, PET의 지속적인 추락현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노동력과 시간이 요구되어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먹구구식 대처방안'이었습니다. PET가 자동화 라인 이송 시, 중간에 끼어 추락하게 되면 이를 라인에 다시 올려놓아 공장 라인을 재가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PET 속에 삽입되었고 이는 식품업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위생에 크게 저해되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을 통해 고치는 것은 잠시뿐이었고 또다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공채의 신으로 돌아온 대세, 인크루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PET의 사출금형 교체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PET 대각선 폭과 자동화 라인 벨트의 폭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자동화 라인 커브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해 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각형 모양에서 원형 모양의 PET로 교체함으로써, 일정한 제품 폭 길이를 바탕으로 끼임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동 완충 장치 구축입니다. 진동으로 인해 야기된 제품 끼임 현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자동화 라인 지지대에 완충장치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추락현상 완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제안했던 의견 자체가 당장에 큰 비용이 드는 해결방안이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점임을 강조하였고 공장장님께 이를 강하게 어필한 결과, 다음 설비 개선에 적극 참고하겠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접 문제점을 맞닥뜨려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판단력과 추진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성장 과정 및 인생관, 개인 성격의 장·단점

[‘만족하지 않는 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당신 최고의 걸작은 무엇인가?’ ‘Next one (다음 작품입니다)’ 이 대화는 찰리 채플린의 일화 중 하나로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를 지향하고 발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마음속에 새겨 늘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보다는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어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더 큰 꿈을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설비/기술업무에 가장 필요한 요인 중 하나는 도전 정신입니다. 최신기술의 trend를 빠르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무한 경쟁 시대 속에 도태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 품질체계 구축 및 유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을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년 전까지 뚱뚱한 외모 때문에 늘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 자신의 발전이 없는 채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체중 감량을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가 ‘중간에 그만두겠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편견을 깨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물고 적극성과 의욕을 바탕으로 도전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5개월 만에 30kg을 감량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도전하는 자에게 인생은 미소 짓는다’라는 명언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도전하고 극복함으로써 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늘 시도하여 설비,기술의 궁극적 목표인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프로세스 구현에 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공채의 신으로 돌아온 대세, 인크루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4, 10년 후 본인의 모습

[싫은 소리 잘 못 합니다, 하지만 잘 이끌 자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게 되면 늘 꿈꿔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책에 상관없이 꾸준함을 바탕으로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진 '박지성'같은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 하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남을 휘어잡아야 일이 잘 돌아간다' 라고 하며 편잔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다른 방식을 택함으로써 팀플레이를 진행할 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선수범으로 열심히 일에 임하여 남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고 그들과의 눈높이를 맞추으로써 편잔과 욕박보다는 사소한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려는 소통형 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소리를 높여 저의 의견만 주도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장점이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찾아낸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팀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려 하는 'Listener'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고 개성이 강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루, 이를 지내다 보면 저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 팀에서 팀장이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회사를 이끄는 팀의 리더가 된다면 팀이 끈끈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존재하겠지만,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술선수범의 자세로 좀 더 자신을 드러내겠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좀 더 강하게 인식시켜 궁극적으로 팀을 변화시키고 하나의 유기체로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꼭 10년 뒤에는 '따뜻함'과 '강인함'을 두루 갖춰 팀을 함께 이끄는 together형 리더가 되겠습니다.

5. 기타 하고 싶은 말 자유 기술

[방혜성 삼행시]

방- 방방 곡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설비 유지/보수 기술병으로 자원입대하여 실제 기계에 대한 현장경험을 쌓았으며 3D CAD 대회 참여, 교내 기계공작 교육수로, 생산 기술 인턴 등 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의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혜- 혜성과 같은 열정으로 무엇이든 도전 하였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체중 감량을 5개월만에 30kg을 감량함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도전하고 극복함으로써 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채의 신으로 돌아온 대세, 인크루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성- 성과를 낼줄알기에 이제는 국내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셀트리온에 지원하게되었고 새로운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교육할 때 드는 부가비용과 시간이 5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빨리 교육하고 빨리 현업에 배치해야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빨리 업무를 자세히 익혀 현업에 투입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는 다양한 전공 대외 활동과 현업 경험을 통해 비릇된 자신감과 노하우가 있는 '경험형 신입사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사 후, 현장, 사무직을 가리지 않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일을 배우겠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이 기본 발판이 되어 기술 업무 진행 시 큰 힘을 보태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공채의 신으로 돌아온 대세, 인크루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